

더불어 민주당 홍보위원회 2026. 9. 1.(화)	보 도 자 료		
담당 : 민주당티비준비TF	연락처	TF단장 한웅현 010-8486-3011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화) 12:00

‘민주당티비(민티07)’, 첫 생방송 동접자 5만 5천 돌파... 기존 생중계 대비 10배 폭발적 호응

- ‘민티07’, 1일 오전 7시 첫 시범 방송... 동시 접속자 최고 55,053명 기록
- 첫 주제 ‘메가텐(Mega 10)’, 김민석 당대표 등 출연해 당의 미래 전략과 민생
행보 제시
- 김민석 대표 “잠깐 와서 당의 기조 확인하고 가는 방송, 이것이 37분의 의미”
- 시청자 피드백 즉각 수용하는 모습도... “카메라·음향 문제 보완해 목요일 방송
더 완벽하게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개편해 선보인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약칭 민티)’의 아침 라이브 방송 ‘민티07’이 1일(화)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일 오전 7시에 진행된 ‘민티07’의 첫 파일럿(시범) 방송은 최고 동시 접속자 수 5만 5,053명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당 최고위원회의 생중계 방송의 평균 시청자 수(3,000~6,000명)를 약 10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당의 새로운 미디어 소통 방식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방증했다.

이날 첫 방송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미래 전략인 ‘메가텐(Mega 10)’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민생 중심, 정당 혁신, 청년과의 점점 강화를 통해 국가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당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방송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이훈기 의원, ‘1030청년정책단’ 전은수 의원, 그리고 강수영 평론가가 출연하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국민의 삶을 챙길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 및 개인 SNS를 통해 새롭게 론칭한 ‘민티07’의 목적과 편성 원칙인 ‘37분’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며, “잠깐 와서 기조를 확인하고 가도 되는 ‘민주 기조 방송’이 바로 37분이 갖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티07은 1부와 2부가 37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된다. 3부 ‘모두의 문화’는 녹화 방송으로 정오에 1부, 2부와 함께 풀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날 모두의 문화는 대중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 출연하여 KPOP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작은 공연장과 인디밴드의 현실을 짚어보았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민티’ 개국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 앵커 출신 진행자와 다채로운 패널이 이끄는 새로운 포맷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당의 핵심 의제를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일럿 방송의 취지인 ‘시청자 피드백 수용’도 즉각적으로 이행한다. 한웅현 민주당티비준비TF 단장은 “오늘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께서 실시간으로 의견 주신 카메라 및 음향 문제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오는 목요일 방송에서는 시청자들께서 더 좋은 콘텐츠를 한층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 방송 기간 동안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 뒤, 오는 9월 14일부터 정규 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끝.